

유치환 시에 나타난 저항 의식 연구

- 생태아나키즘적 관점을 바탕으로 -

양진영*

목 차

1. 서론
2. 생태아나키즘과 심층생태주의의 자연 인식
3. 유치환 시의 저항 의식
4. 결론

〈국문초록〉

유치환의 시는 생명의지, 허무, 아나키즘 등 여러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는데 그중 아나키즘적 특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심층생태주의가 주장하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inherent worth)로 독해되는 경우가 있다. 아나키즘의 관심사는 권력 관계와 위계질서의 문제이므로, 심층생태주의가 표방하는 자연과 인간의 동일시를 신비주의, 인간혐오주의(antihumanism)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아나키즘에서 자연이나 자연관은 심층생태주의가 주장하는, 회귀나 현실 치환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일부 논자는 유치환의 아나키즘 시를 심층생태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존의 연구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유치환의 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고드윈(William Godwin), 크로포트킨(Pyotr Kropotkin) 등 초기 아나키스트를 중심으로 아나키즘의 자연관에 대해 고찰했다. 그 결과 아나키즘의 일차적 관심사가 '자연'이 아니라 '탈정치', 즉 억압적인 체제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초기 무정부주의와 생태주의가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결합한 생태아나키즘적 사유와, 그것을 사회생태주의로 확장한 북친(Murray Bookchin)을 소개하고 사회생태주의와 심층생태주의의 자연관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旗幟』등 유치환의 시를 현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생태아나키즘적 관점에서 감상하고 이것이 자연과 원시의 동경이라는, 기존의 해석과 다른 점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그동안 생명의식, 허무 등으로 이해돼 온 유치환의 일부 시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에 대한 저항 의식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 본고의 성과이다.

주제어: 유치환, 심층생태주의, 생태아나키즘, 아나키즘, 사회생태주의, 머레이 북친

1. 서론

유치환의 시는 1990년 전까지는 주로 생명의지¹⁾나 허무²⁾ 등의 관점에서 조명되었고 아나키즘적 특성을 다룬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며 2000년 이후에 주로 소개되었다. 아나키즘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사를 보면 민명자는 유치환의 시가 “個我的 성찰을 통한 원시공동체의 지향이 두드러진다”³⁾고 분석해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작품으로 분류했다. 박진희는 유치환 시를 “절대 고독 속에서의 본연적 자아 탐색”과 “예속을 강요하는 권위와 힘에 대한 부정의식”⁴⁾으로 보았고 황동옥은 “당대에 대한 비판적 사유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중성”⁵⁾으로 이해했다. 유치환의

1) 김용직 외 공저, 『유치환과 생명의지』, 『한국현대시사연구』, 일지사, 1983, 379~389쪽; 권영민, 『유치환과 생명의지』, 『다시 읽은 유치환』, 시문학사, 2008, 14~27쪽.

2) 김종길, 『靑馬의生涯와詩』, 『靑馬詩選』, 민음사, 1975, 12~13쪽; 김윤식·김현 공저,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1, 266쪽.

3) 민명자, 『육사와 청마 시에 나타난 아나키즘 연구』, 『비평문학』 29, 한국비평문학회, 2008, 149쪽.

4) 박진희, 『유치환 시의 아나키즘적 특성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5) 황동옥, 『유치환의 시에 나타나는 아나키즘』,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초기 시에 나타난 아나키즘 사상에 주목한 이미경은 “초기 청마 문학의 사상적 배경은 1930년대 후에야 수용되기 시작하는 ‘생철학’ 보다는 아나키즘의 영향이 더욱 결정적”⁶⁾이라는 견해이다.

최근의 논의로는 조동범의 실증적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유치환이 아나키스트로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사료⁷⁾를 통해 입증했다. 조동범의 논문은 유치환이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했던 자료를 통해 “유치환의 사상적, 정치적 실천 의지와 시적 아나키 사이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⁸⁾는 점에서 연구사로써 가치가 높다. 그전에도 유치환이 스스로 밝힌 산문⁹⁾이나 일본에서의 행적¹⁰⁾을 통해 아나키즘과의 관련성은 입증돼 왔으며 오장환은 정대호의 논문을 근거로 “김화산으로 대표되는 아나키스트 문예 이론가들의 투쟁의 배후에는 유치진, 유치환 등이 있었다.”¹¹⁾고 밝히고 있다.

-
- 6) 이미경, 『유치환과 아나키즘 - 특히『소제부』, 『생리』誌 소재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26-4, 한국학보(일지사), 2000, 191쪽.
- 7) 아래를 참조 “유치환은 아나키스트 현실 정당인 독립노동당의 당원으로 활동을 했으며, 당수인 단주 유립 등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기도 했다.(…) 하기락, 최갑용, 박영환 등의 증언으로 보면 유치환이 독립노동당의 당원으로 활동했음은 명백해 보인다.”(조동범, 『아나키즘 시문학에 나타난 자연인식 연구 - 유치환 시의 자연인식과 아나키즘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53, 우리문학회, 2017, 441~442쪽.)
- 8) 단주 유립이 주도해 창당한 독립노동당과 유치환의 관계를 밝힌 연구로 아래가 있다. (조동범, 『유치환의 정치적 실천 의지와 시적 아나키』, 『현대문학이론연구』 6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363쪽.)
- 9) 유치환은 아나키즘과 아나키즘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을 직접 밝히고 있다. 아래를 참조 “내가 의식적으로 시라는 것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으니 나이로 스물셋 무엇보다 그 때 한창 일본에서 힘차게 나타나고 있던 ‘아나키스트’ 詩人들의 作品에 공감을 느꼈다.”(유치환, 남송우 엮음, 『청마 유치환 전집』 V, 국학자료원, 2008, 281쪽.)
- 10) 아래를 참조 “유치진·치환·치상 세 형제가 1920년대에 일본에서 공부할 때 로망 롤랑, 크로포트킨,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등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유치환이 동인지 『소제부』와 『생리』에 시를 발표할 때 문학사상의 배경이 된 아나키즘과의 관련성 문제는 그의 시를 논할 때마다 간과될 수없는 사안이 되기도 한다.”(송희복, 『한국 시의 아나키즘 영향과 무정부 낙원관』, 『비평문학』 46, 한국비평문학회, 2012, 245쪽.)
- 11) 정대호, 『유치환 시 연구: 아나키즘과 세계 인식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오장환,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87쪽.

이어서 그는 “일제하 한국아나키즘운동은 식민지상황에서 일제를 구축하기 위한 항일민족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¹²⁾하고 있다고 주장해 아나키스트로서 유치환의 시를 저항의식으로 읽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구승회도 당시 사회주의 사상의 하나로 아나키즘 사상을 수용하여 문학을 창작한 일제강점기 문인으로 신채호, 황석우, 김화산, 권구현 등과 함께 유치환을 거론하고 있다.¹³⁾ 그는 유치환의 시, 『봄 없는 나라여』를 예로 들어 “아나키즘적 인식에 기반해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좌절한 시”¹⁴⁾라고 평가해 현실에 대한 유치환의 치열한 응시를 입증했다.

본고와 같은 시각에서 유치환의 시를 생태아나키즘적 발화로 해석한 연구자는 김경복을 들 수 있다. 그는 “사회적 비판과 사회적 변혁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생태주의만이 사회를 변혁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¹⁵⁾는 북친의 사상에 바탕해 권위주의적 사회 제도를 거부하는 아나키즘 사상에 바탕을 둔 생태주의를 생태아나키즘으로 일컫는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다수의 시가 발견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로 유치환의 『生命의 書 一章』를 들고 있다.¹⁶⁾ 또 이런 시들은 일본제국주의의 탄압이 심한 현실에서 자연적인 삶을 예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비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렇게 유치환의 시를 아나키즘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것은 그의 정치적, 사상적 측면을 재조명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그동안 유치환의 시는 생명의지, 허무, 이상향과 자연에 대한 동경으로 읽혔는데 이런 관점은 아나키즘 시인들이 주력한, 사상적, 정치적 실천 의지를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시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로부터 유추되는 시인

12) 오장환, 같은 책, 264쪽.

13) 구승회 외 지음, 『한국 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335쪽.

14) 같은 책, 342쪽.

15) 머레이 북친, 박홍규 역,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16쪽.

16) 김경복, 『생태 아나키즘 문학의 흐름』,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1998, 70~72쪽.

의 현실 인식, 정치적 의식, 저항 의지는 다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치환의 시를 아나키즘적 입장에서 독해해 보고 그로부터 그가 당대에 가지고 있던 정치적, 사상적 의식을 읽어내는 일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그동안 허무주의적, 유평파적으로 인식됐던 유치환의 시 세계를 저항적, 현실참여적 세계로 재조명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유치환이 본격적으로 창작을 시작했던 1930년대는 일본제국주의가 만주 사변을 일으켜 억압과 폭력이 거세진 시기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묵과해 왔던 조선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했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문학가들의 실천 단체인 카프(KAPF)도 와해되고 있었다. 당시 아나키즘의 다른 이름인 무정부주의¹⁷⁾는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환이 아나키즘적 사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이를 시에서 형상화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몇몇 논자는 유치환의 시를 어떠한 지배도 존재하지 않는 순정 아나키의 상태로 이해하는데 이런 독법은 곧잘 현실도피적, 자연에의 귀향 의지로 오해 받기도 한다. 그러나 유치환이 고민했던 “인간과는 전혀 무관한 허무의지”¹⁸⁾나 “산, 바다, 돌 등 무생물, 나무 등 자연에 대한 한없는 심취”¹⁹⁾는 인간 세계를 떠난, 자연 상태에 대한 시인의 희구라기 보다는 이런 자연이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평등과 자유의 원리를, 억압적이고 지배적인 현실에서 구현하고 싶다는, 정치적 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본고는 그동안 다른 논자들이 심층생태주의적(Deep Ecology)²⁰⁾ 자연관에 기반해 비정치성, 비저항성으로 해석해

17) 오장환은 아나키즘이 동양에 전파된 것은 1900년대 초로 1902년 일본의 게무야마 센타로(煙山專太郎)가 무정부주의로 번역하면서 이후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에서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란 용어로 사용하게 됐다고 전한다.(오장환, 앞의 책, 23쪽.)

18) 김윤식, 『유치환론』, 『다시 읽는 유치환』, 시문학사, 2008, 91쪽.

19) 조병무, 『의지, 그리고 자연사랑』, 같은 책, 205~206쪽.

20) Deep Ecology는 역자에 따라서 근본생태주의나 심층생태주의로 번역된다. 심층생태주의를 생물중심주의(Biocentrism)와 동일시하는 학자도 있다.(Murray Bookchin, The Philosophy of Social Ecology, New York: Black Rose Books, 1995, pp.97~146.) 그렉

은 유치환의 시를 생태아나키즘적 관점에서 정치성, 저항성으로 조명해 보는 시도이다.

2. 생태아나키즘과 심층생태주의의 자연 인식

아나키즘과 생태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장 프레포지에의 설명이 유용하다. 그는 아나키즘과 생태주의의 교차점을 탈정치주의(apolitisme)로 보고 의회나 정부 차원의 중개 없이 현장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설명했다.²¹⁾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사상의 일차적 관심사가 ‘자연’이 아니라 ‘탈정치’, 즉 억압적인 체제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일차적 관심사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두 사상은 자연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아나키스트 학파는 공통된 가설에 의해 결합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론적 사회관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이러한 “자연론적 사회관을 바탕으로 해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사회적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는 성질을 자기 속에 갖고 있다.”²²⁾고 주장한다. 아나키즘의 선구자로 불리는 고드윈은 “인간의 행복과 양립하는 사회는 자연적 성장체여야 하며 이에 대답하는 사회가 국가”²³⁾라고 보았다. 국가를 형성하는 논리가 자연법과 그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용되면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을 노예화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과 국가를 대비해서 자연의 우수성을 강조했다기 보다는 이상적인 국가 형태를 제시하는데 ‘자연적 성장체’를 모델로 삼았다

개러드는 심층생태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아르네 네스(Arne Naess), 조지 세션스(George Sessions), 개리 스나이더(Gary Snyder)를 꼽고 있다.(그렉 개러드, 강규한 옮김, 『생태비평』,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39쪽.)

21) 장 프레포지에, 이소희·이지선·김지은 옮김, 『아나키즘의 역사』, 이룸, 2003, 360쪽.

22) 방영준, 『저항과 희망, 아나키즘』, 이학사, 2006, 27쪽.

23) 같은 책, 28쪽.

고 봐야 한다.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인 크로포트킨 역시 ‘자연적 법칙’에 따른 사회 구성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사회상은 “자연의 생활 자체에 보여지는 바와 같은 것”으로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진화” 같은 것이다.²⁴⁾ 크로포트킨은 이러한 자연적 법칙이 인간과 인간 사회에 이미 내재돼 있다고 함으로써 ‘자연적 법칙’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²⁵⁾ 두 이론가에서 보았듯이 아나키즘에서 자연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 모델로 삼아야 하는, 필수적인 원리이다.

이렇듯 초기 아나키즘에서 강조된, 자연 질서에 대한 신뢰와 이를 인간 사회 구성의 원리로 삼으려는 사유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세계,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간 사회를 개선하려는 세계관, 즉 사회생태주의적 세계관으로 발전한다. 미국에서 1930년대 이후부터 무정부주의 운동에 주력했던 북친²⁶⁾의 사회생태주의는 고드윈이나 크로포트킨이 추구했던 아나키즘적 자연관과 생태주의의 결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⁷⁾

사회생태론은 문화가 자연 진화와 아무런 관련성도 갖지 않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그래서 사회생태론은 문화의 뿌리를 자연 속에서 탐구하고자 하며, 자연으

24) 크로포트킨, 이을규 역, 『현대과학과 아나키즘』, 창문각, 1983, 59쪽.

25) 같은 책, 34쪽.

26) 그렉 개러드는 사회생태학이 미하일 바쿠닌(Mikhail Bakunin), 표트르 크로포트킨(Pyotr Kropotkin)의 무정부주의에서 시작했으며 머레이 북친을 대표 철학자로 보고 있다.(그렉 개러드, 앞의 책, 49~50쪽.)

27) 문순홍에 따르면 데이비드 페퍼와 로빈 에커슬리(Robyn Eckersley, Environmentalism and political Theor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는 북친의 사회생태론을 생태아나키즘(ecoanarchism)으로 칭하고 있다.(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2006, 126쪽.) 페퍼는 북친을 green anarchism으로 부르는데 문순홍은 ecoanarchism과 동일어로 간주해 생태아나키즘으로 번역한 듯하다.(David Pepper, Eco-Socialism: from deep ecology to social justice, London: Routledge, 1993, p.204.) 문순홍은 북친이 무정부주의자로 출발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정부주의의 맥은 소멸의 길을 걸어오고 있고 생태운동을 통해 재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친을 사회생태론자로 호칭한다.(문순홍, 같은 책, 127쪽.)

로부터 사회에 이르는 생물 진화의 점진적 이행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Social ecology, in effect, stands at odds with the notion that culture has no roots whatever in natural evolution. Indeed, it explores the roots of the cultural in the natural and seeks to ascertain the gradations of biological development that phase the natural into the social.²⁸⁾

위 글의 요지는 사회 발전은 자유가 완성된 상태로 유지되는, 생태적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생태적 가치와 원리는 곧바로 인간 사회의 가치와 원리가 된다. 우주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는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보면 사회의 완성은 우주, 즉 전체 자연의 완성이기도 하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지배와 피지배, 대립과 소외가 일상화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으며 우주를 갈등과 파괴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 복진은 이런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생태적 세계관을 주장한다.

일제강점기의 억압된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한국의 근대문학에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내세운 아나키즘은 매력적인 사상이었고 자연의 질서와 자연주의적 삶의 형태를 작품 안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대해 오장환은 한국 아나키즘 문학은 “바쿠닌의 급진적 파괴론과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의 영향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다.”²⁹⁾고 보았다. 구승희는 “자연법은 아나키즘 사상의 형성 모태”임을 강조하면서 “한국 아나키즘 문학에서 자연주의적 삶의 형태는 유토피아적 이상사회의 성격을 띠고 나타나는 것이 특징”³⁰⁾이라고 밝혔다. 일본제국주의 세력과 정면으로 맞설 수 없는 상황 하에서 한국 아나키즘 문학은 은유적으로, 억압이 없는 자연 질서에 기초한 이상 사회를 묘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서구 아나키즘의 특성이

28) Murray Bookchin, op. cit., p.86; 머레이 북친, 문순홍 옮김, 『사회생태론의 철학』, 솔, 1997, 125쪽. 문순홍 번역 중 일부는 수정했다.

29) 오장환, 앞의 책, 260쪽.

30) 구승희 외 지음, 앞의 책, 361쪽.

정치적 지향성보다는 유토피아적 지향성에 치중한 작품으로 읽히기 쉽다. 이하 다수의 유치환의 시들이 생태아나키즘의 본류인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연과 이상 사회에 대한 회구로 해석된 데는 일제강점기 아나키즘문학의, 이런 특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나키즘적 시각에서 창작된 생태시, 생명주의 시의 해석에서 생태아나키즘과 심층생태주의 관점을 혼동해 아나키즘 시를 자연의 동경이나 회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시 해석에 앞서 먼저 두 사상의 차이를 비교해보도록 하자. 심층생태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아르네 네스³¹⁾가 제시하는 핵심 정신은 아래와 같다.

지상의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안녕과 번영은 그 자체의 가치(내재적 가치, value in themselves)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인간적 목적을 위한 비인간 세계의 효율성과 무관하다.³²⁾

위에서 보듯이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나 지배의 대상으로 보았던, 기존의 세계관을 부정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현대문명의 위기는 근대의 실재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가치관이다.³³⁾ 그들은 근대의 실재론으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원론, 기계론, 인간중심주의 등을 예로 드는데 이러한 실재론은 데카르트, 뉴턴, 베이컨의 사상에 기원을 두고 있다. 특히 이원론적 실재론에서 인간은 나머지 자연 개체와 분리돼 그것들의 위에 있는 존재가 된다. 이로부터 인간중심주의가 형성되고 인간에 의한

31) 아래를 참조. “내재적 가치는 1970년대에 와서 철학자 네스가 심층생태주의의 주요 전제로 태동하였다.(…)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라는 논문에서 그는 근본적인 생태론으로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를 명명한다.(정선영, 『왜 심층생태주의인가: 생태비평의 세 가지 근본주의 생태론 고찰』, 『인문사회 21』6,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380쪽.)

32) 그렉 개러드, 앞의 책, 39쪽.

33) 문순홍, 앞의 책, 130쪽.

무차별적인 자연의 이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이런 인간중심적 실재관에 반대해 생물중심적 실재관으로 전환을 촉구한다. 그 결과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성은 인간 등 생물학적 종뿐만 아니라 강, 경관 등 비생명체에까지 고루 적용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자연은 공생의 대상이며 자연과 인간은 유기체적 전체의 구성원이다.

북친을 비롯한 사회생태주의자들은 심층생태학의 이러한 생물중심주의(biocentrism) 사고를 반인본주의(antihumanism)³⁴⁾라고 비난한다. 생물중심주의는 인간을 자연 세계에 복종시킴으로써 자연계 내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빼앗아버렸다는 논리다. 심층생태주의가 인간은 자연의 일부, 인간과 비인간이 동일한 가치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 인간과 자연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여전히 인간중심적 사고나 행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친의 반론은 어느 정도 설득적이다. 특히 생물학적 평등의 경우 심층생태주의가 지향점으로 삼는 자연 자체도 적자생존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점에서 생물중심적 주장은 한계를 만난다.

이에 반해 사회생태주의는 심층생태주의가 관심을 가지는 오늘날의 생태 위기가 인간 사회의 억압적 체제와 위계질서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보고 현실적 해법인 이른바, “참여적 진화(participatory evolution)³⁵⁾”로서의 자연관을 내세운다. 이를 위해 북친은 기존의 진화론적 자연을 일차 자연(first nature), 그 자연에서 진화해 온 인간 사회를 이차 자연(second nature)³⁶⁾으로 구분하고 인간 사회 역시 범자연적인 범위에 포함시킨다. 일차 자연은 자신의 내적인 동력에 의해 진화되고 이 과정을 통해 이차 자연이 등장하는데 북친이 의미하는 이차 자연은 다양하게 제도화된 인간 공동체, 예를 들어 기술이나 언어 등이다. 인간이 일차 자연에서 진화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이차 자연을 창조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참여적 진화관에서 자연의 세계

34) Murray Bookchin, op. cit., pp.82~83.

35) *Ibids.*, p.78.

36) *Ibids.*, pp.119~120.

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생물종들이 모두 동등한 참여자로 공생의 삶을 살아간다. 북친은 여기서 더 나아가 생태 사회는 일차 자연과 이차 자연을 초월하여 새로운 자유 자연(free nature)으로 향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³⁷⁾ 이 자연은 인간이 갈등(conflict), 우연(contingency), 훼손(waste), 강요(compulsion)에 사려 깊게 대처하는 자연으로 일차 자연과 이차 자연이 자신의 특수성과 통합성을 잃지 않는 단계이다.³⁸⁾

북친은 이런 개념을 통해 자연과 인간 사회를 동일한 층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자연을 인간의 하위 체계로 간주해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를 정당화했던, 서구 실재론의 이분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생태주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인정하고 현실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북친은 “자연에의 인간 개입은 내재적이고 불가피하다(Human intervention into nature is inherent and inevitable).”³⁹⁾ 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이차 자연은 일차 자연에 내재한 진화 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생태주의의 관심사는 심층생태주의가 주장하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나 자연적 질서 보다는 현실 사회에서의 권력 관계와 위계질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크로포트킨은 아나키스트가 구현하려는 사회는 “구성원 간의 관계가 법률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상호간의 합의나 풍습에 의해 규제된 사회”이며 이런 사회에는 “권력이나 통치가 없고, 자연의 생활 자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끊임없는 전진이 있을 뿐”⁴⁰⁾이라고 언급했다. 아나키즘에서는

37) *Ibids.*, pp.136~137.

38) 이에 대해 문순홍은 번역서의 해제를 통해 아래처럼 설명한다. “세 자연은 별개로 구분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다. 세 자연은 과정적인 연속체로 개별화돼 있는 동시에 공존한다. 즉 이들 간의 관계는 누적적이면서도 동시에 각각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권리와 영역을 가지는 관계이며 나아가 자신의 영역을 창조해 가는 존재들간의 관계이다.” (머레이 북친, 문순홍 옮김, 앞의 책, 259쪽.)

39) Murray Bookchin, *op. cit.*, p.131.

40) 크로포트킨, 앞의 책, 65쪽.

이런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사람을 권위주의적 국가의 대항 개념으로 自主人(libertarian)⁴¹⁾이라 부르는데 아나키즘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 自主人의 실현인 셈이다. 무정부주의자로 시작한 북친 역시 “국가와 종교의 권위와 위계질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반발”을 사회생태주의의 중심 사상으로 설정하고 “사회는 국가에 의해 조직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필요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바닥으로부터 조직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⁴²⁾ 생태위기에 대한 해법을 이상적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북친의 논리는 어느 정도 합당해 보인다.

3. 유치환 시의 저항 의식

지금까지 보듯이 사회생태주의나 생태아나키즘의 관심사는 현실에서의 권력 관계나 위계질서의 문제이며 심층생태주의가 실현하려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나 자연 상태에 대한 맹목적인 저항 의식은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의 억압의 회피를 위해 현실을 포기하고 자연으로 귀향하거나 자연을 동경하는 태도를 생태아나키즘은 배척한다. 때문에 유치환이 생태아나키즘적 사유로 쓴 시를 감상할 때도 이러한 현실중심적 사유에 바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처럼 일부 논자는 유치환 시의 시적 응시를 현실의 억압보다는 자연에의 회구에 두고 있다.

41) 우드코크, 최갑용 역, 『아나키즘: 운동편』, 형설출판사, 1978, 254~255쪽. 보다 상세한 개념은 아래를 참조 “자주적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의 유형은 다양하다. 고드윈의 인도적 아나키즘, 슈티르너의 에고이스트적 아나키즘, 터커의 자유방임적 아나키즘을 우선 거론할 수 있다. 그중 슈티르너가 개인에 대한 집착이 제일 강하다.”(방영준, 앞의 책, 37쪽.)

42) 문순홍, 앞의 책, 126쪽.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海原을 向하야 혼드는
 永遠한 노스탈자의 손수건

純情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理念의 標人대 끝에
 哀愁는 白鷺처럼 날개를 퍼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닦은 마음을
 맨처음 공중에 달줄을 안 그는.

- 「旗빨」, 전문

이 시에 대해 장석주는 “「旗빨」에 등장하는 ‘깃발’은 그가 지향했던 ‘정신적 높이’와 상응하는 위치에서 펄럭이는 존재이며, 동시에 아직 변절하지 않는 생명의 원형이다.”⁴³⁾라고 평한다. 생명주의적 관점에서 이처럼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유치환이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이 심해지는 1930년대에 아나키즘적 성향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설명한 생태아나키즘이나 사회생태주의의 세계관으로 조명해 보면 이 시는 현재 시인을 억압하는, 식민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저항 의지로 읽힌다. 특히 여기서 아래의 다른 논문들이 주목한 “푸른 海原”에 길항하는 이미지가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 시어는 다른 이미지들에 의해 전경화되지 못하고 있어 시상의 발화점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지의 확산에 주목하면 이 시의 모티프는 “푸른 海原”이 아니라 억압된 시인이, 기존 질서에서 이탈하려 내지르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 “아우성”에서 착상된 시상이 “손수건, 純情, 理念의 標人대, 哀愁, 날개, 슬프고도 애닦은 마음, 공중에 달다”의 이미지로 변주되고 있다. 화자가 겪는 현실은 아우성

43)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나무이하기, 2009, 220쪽.

을 내뱉어도 소리로 발음되지 못할 만큼 억압적이다. 아무런 강제나 억눌림이 없는 “푸른 海原”을 순간적으로 떠올려보지만 인식처나 해방 공간을 은유하는 그 海原은 시적 상상으로 확산되지 못한다. 대신 화자의 마음에는 구원을 부르는, “旗幟”의 환유인 “손수건”이 펼쳐지고, 그 “손수건”은 “理念의 標人대 끝에서 “날개”를 펴고 있다. 화자는 “공중”에 매달린, 자신이 현실의 억압에서 느끼고 있는 “슬프고도 애닦은 마음”을 “旗幟”이라는, 구원의 상징물로 환유해 매우 시급하고 절절한, 자유와 해방에의 의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제목인 “旗幟”은 현실의 억압을 널리 알리는 저항성의 표상으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사회 제도에 대한 저항 정신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생태아나키즘적 시어로 볼 수 있다. “푸른 海原”도 화자가 이상적으로 여겨 도달하고자 하는 특정한 “자연의 지점”, 즉 대지적 개념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연의 질서로 이루어진, 그래서 현실과 같은 억제와 압박이 없는 아나키즘적 세계의 환유이다. 때문에 “푸른 海原”은 현실과 대립되는 가시적인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머릿속에서 그려낸 아나키즘적 상상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조동범은 “푸른 海原”을 아래처럼 이해하고 있다.

아나키즘이 지향했던 유토피아는 ‘깃발’이 지향하는 “푸른 海原”의 세계와 동일하다. (...) 유치환은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아나키즘적 세계관(깃발)의 귀결점으로 “푸른 海原”을 제시한다. (...) 이처럼 『旗幟』은 아나키즘이 도달해야 하는 지점으로 자연을 호명함으로써 자연에의 의지를 드러낸다.⁴⁴⁾

생태아나키즘은 조동범이 언급한, “자연을 호명함으로써 자연에의 의지”에 천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의 인용문은 아나키즘적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생태아나키즘이나 사회생태주의는 북친이 강조한 대로

44) 조동범, 『아나키즘 시문학에 나타난 자연 인식 연구 - 유치환 시의 자연 인식과 아나키즘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53, 우리문학회, 2017, 450~451쪽.

“국가와 종교의 권위와 위계질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반발”이 주된 관심사이다. 자연 상태, 자연의 질서, 특히 고드윈이나 크로포트킨이 표명한 자연적 법칙 등은 억압적 위계질서를 해체하는 준거로써 의미가 있으며 현실을 떠난 “자연의 지점을 갈망”하거나 “아나키즘적 세계관(깃발)의 귀결점으로 자연(푸른海原)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억압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필요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바닥으로부터 조직”, 즉 생물지역주의적 실천⁴⁵⁾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유치환의 초기 시에 해당하는『旗幟』에 대한 기존 논의 중에서 생태아나키즘적 시적 응시를 현실의 억압보다는 자연에의 회귀로 해석한 예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본고는 아나키즘 본연의 사유에 의거해 재해석을 시도했는데 그 방법은 시의 기저를 이루는 이미지의 확산 양상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유치환의 또 다른 시, 『生命의 書 一章』을 감상해 보자.

나의 知識이 毒한 懷疑를 救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病든 나무처럼 生命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亞喇⁴⁶⁾比亞 沙漠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白日이 不死身같이 灼熱하고
 一切가 모래 속에 死滅한 永劫의 虛寂에
 오직 아래—의 神만이
 밤마다 苦悶하고 彷徨하는 熱沙의 끝

그 烈烈한 孤獨 가운데

45)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는 발 디디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장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며 보존과 순환을 강조하는 자기충족적 생산과 소비가 강조된다.(그렉 개러드, 앞의 책, 52쪽.)

46) 남송우가 엮은『청마 유치환 전집 I』(국학자료원, 2008, 120쪽.)에는 자(刺)로 표기돼 있으나 라(喇)인 듯하다.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을로 서면
 運命처럼 만드시 「나」와 對面 하게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生命이란
 그 原始의 本然한 姿態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沙丘에 悔恨 없는 白骨을 쫓아리라

- 「生命의 書 一章」, 전문

이 시를 권력이나 위계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아나키즘적 사유로 보면 시의 모티프, 즉 시가 터져나오는 자리는, 현실의 억압기제 하에서 “부대끼는 생명”으로 아라비아 사막은 화자가 욕구하는 직접적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화자는 그 사막에서 “原始의 本然한 姿態”, 다시 말해 “밤마다 苦悶하고 彷徨하는”, “아라—의 神”의 자태를 배워 현실에서 부대끼는 생명성을 회복하려고 한다. 시상의 기표는 懷疑-生命-아라—의 神-苦悶하고 彷徨-原始의 姿態로 이행되고 있으며 시의 이미지리는 懷疑를 구하는 ‘자아’-부대끼는 生命-亞喇比亞 沙漠으로-苦悶하고 彷徨하는 아라의 神-原始의 姿態를 배우는 ‘자아’로 확대되고 있다. 서두의, 현실의 억압 하에서 회의하는 자이는 亞喇比亞 沙漠과 아라의 신을 통해 결미에서는 原始의 姿態, 즉 생태아나키즘이 사유의 기준으로 삼는, 자연적 질서를 배우는 자아, 그래서 현실에서의 압박감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자아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시적 자이는 아래의 다른 논자들이 이해했던, 아라비아 사막의 원시성을 찾는 자아가 아니라 그 원시성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현실의 억압을 해소하는 자아가 되며 이런 자아가 바로 복친 등 생태아나키스트들이 표상하는 개인의 전형이다.

이런 해석과 다른, 기존 연구를 보면 생명주의의 관점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으로의 도피를 결행하려는 화자의 의도”⁴⁷⁾, “병든 생명을 죽음의 공간

47) 김광엽, 「한국 현대시의 공간 구조 연구: 청마와 육사, 김춘수와 김수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51쪽.

에서의 시련과 단련을 통해 궁극적 생명으로 재생시키고자 하는 열망⁴⁸⁾으로 읽는다. 생태아나키즘적 시각의 논의를 보면 김경복은 “아라비아 사막은 화자가 속한 지금 이곳의 파편적 근대성을 넘어서는 원시적 공간”으로 이 시를 통해 유치환은 “현실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모순에 대한 상상적 해결을 발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 방식은 “생태 아나키즘의 인식을 통해 당대 현실을 바라보고 있음”의 증거라고 평했다.⁴⁹⁾ 민명자는 “화자가 추구하는 것은 때 묻지 않은 유평이 살아 있는 원초성의 세계, 또는 그러한 본성을 간직한 이상적 인간상⁵⁰⁾으로, 조동범은 “原始의 本然한 姿態를 추구하는 나의 生命은 우리의 삶과 세계가 간절히 원하는 원형성의 지점을 표상⁵¹⁾하는 것으로, 박진희는 “아라비아 사막은 바로 원시의 공간”으로 “원시의 본연에 대한 시적 자아의 의지가 죽음을 각오할 만큼 강하다.”고 읽었다.⁵²⁾ 이들 연구자들은 이 시의 화자나 정서가 “원시적 공간”, “원초성의 세계”, “원형성의 지점”, “원시의 공간” 등에 천착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앞서 고찰했듯이, 자연의 질서나 원리를 현실의 억압을 해결하는 하나의 준거로 보는 생태아나키즘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같은 독법으로 유치환의 대표 시 중 하나인 소리개를 읽어 보자.

어디서 滄浪의 물결새에서 생겨난 것.
저 蒼穹의 깊은 藍碧이 방울져 떠러진 것.
아아 밝은 七月달 하늘에
높이 뜬 맑은 적은 낮이여.

48) 입수만, 『유치환 시의 낭만적 특성 연구 - 낭만적 아이러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91~92쪽.

49) 김경복, 앞의 논문, 70~72쪽.

50) 민명자, 앞의 논문, 143쪽.

51) 조동범, 『유치환의 정치적 실천 의지와 시적 아나키』, 『현대문학이론연구』 6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376~377쪽.

52) 박진희, 앞의 논문, 79~80쪽.

傲岸하게도
 動物性的의 땅의 執念을 떠나서
 모든 愛念과 因緣의 煩瑣함을 떠나서
 사람이 다스리는 世界를 떠나서
 그는 저만의 삼가하고도 放膽한 녀를 타고
 저 無邊大한 天空을 날어
 거기 靜思의 닷⁵³⁾을 고요히 놓고
 恍惚한 그의 꿈을
 白日⁵⁴⁾의 世界우에 높이 날개 편
 아아 저 소리개

- 「소리개」, 전문

이 시를 역시 아나키즘의 세계관으로 조망한 조동범은 “動物性的의 땅의 執念과, 모든 愛念과 因緣의 煩瑣함과, 사람이 다스리는 世界”를 떠나 “白日의 世界우에 높이 날개 편” 곳에 이르러는 소리개의 비상을 “유토피 아예의 갈망”으로 해석하고 “아나키즘 문학에서의 자연은 이처럼 확고한 지향 의지를 통해 제시된다.”고 평했다.⁵⁵⁾ 박진희도 “탐욕과 수탈, 강제가 수반되는 인위적 제도의 세계”로부터의 떠남이란 “원시적 원형으로서의 자연, 본연적 자연으로의 귀속을 의미”한다고 해 앞서의, 그가 소개한 다른 시들과 같은 해석을 내린다.⁵⁶⁾

이에 반해 생태아나키즘적 관점으로 보면 이 시에서 소리개는 “動物性的의 땅”인 현실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화자의 환유로, 위 논자들이 해석했듯

53) 남송우가 엮은 『청마 유치환 전집 I』(국학자료원, 2008, 33쪽.)에는 ‘닷’으로 표기돼 있다.

54) 생명주의 관점에서는 白日을 “태양을 향한 의지,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허무를 극복하려는 삶에 대한 의지”로 읽는다.(최동호,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물의 심상과 의식의 연구 - 김영랑 · 유치환 · 윤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187쪽.) 반면 본고의 생태아나키즘적 입장에서는 白日을 삶에 대한 집념과 그에 따른 대립이 심각한 현실의 은유로 읽는다.

55) 조동범, 앞의 논문, 378쪽.

56) 박진희, 앞의 논문, 42~43쪽.

이 “자연으로의 저항 의지나 귀속”이 아니다. 시는 “적은 낮”에서 발화돼 放膽한 낮-天空-낮-꿈-날개의 기표로 이어진다. 결미에서 소리개는 白日의 세계, 즉 한낮의 태양처럼 생존이 치열한 현실 위에서 날개를 펴고 있다. 위 논자들에 따르면 소리개는 현실에서 벗어나 멀리, 유토피아나 원시적 원형 공간에 머무는 대상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動物性的의 땅-愛念과 因緣의 煩瑣함-사람이 다스리는 세계를 떠났던 소리개는, 無邊大한 天空에서 靜思의 닳을 놓고 恍惚한 꿈을 얻었고 그 결과 결미에서는 현실인 白日의 세계로 되돌아와 날개를 펴고 있다. 화자는 소리개의 비상을 통해 현실의 밖에서 현실의 억압을 들여다보는, 자연적 지혜를 얻었고 그럼으로써 “動物性的의 땅”에서 계속 살아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것은 곧 생태아나키즘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이 시에서도 현실의 억압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 극복하려는 화자의 저항 의지를 읽어 낼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유치환의 시를 아나키즘적 관점에서 조망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유치환의 시를 허무의식이나 생명의 지에서 고찰한 연구는 그 관점에 따라 나름 수긍할만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그의 시를 아나키즘의 시각으로 읽은 논자 중에는 아나키즘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아나키즘이 중시하는 현실보다는 자연 중심으로 시를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유치환 시에 나타난 저항 의식을 간과하고 그의 시를 이상주의나 유토피아적 창작물로 감상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해 본고는 유치환의 시를 기존의 논의가 원용했던, 자연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심층생태주의적 관점 대신에 인간과 사회를 중심으로 읽는 생태아나키즘적 시각에서 재해석했다. 그 결과 유치환의 일부 시에 나타난 시적 정서가 자연에의 동경이 아니라 현실의 억압과 모순

을 드러내고 환기시키는 저항 의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아나키즘이 표방하는 자연관을 살펴보았다. 우주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은 아나키스트들에게는 국가가 만든 법보다 뛰어난, 균형과 조화의 원리를 가진 세계이다. 고드윈, 크로포트킨 등 아나키스트들은 자연적 법칙에 따른 사회 구성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사회상은 “자연의 생활 자체에 보이는 바와 같은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자연적 법칙이 인간과 사회에 내재돼 있다고 함으로써 ‘자연적 법칙’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 고드윈이나 크로포트킨은 자연을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 모델로 삼아야 하는, 필수적인 원리로 생각했다. 그들에게 자연은 권위적인 힘에 의해 구성된 인간 사회가 억압의 형태를 띠게 되면 회귀하거나 도피하는 인식체가 아니라, 강압적인 사회를 해체해 사회를 자연의 질서 상태로 되돌리는 준거가 되는 셈이다. 이렇듯 자연 질서에 대한 신뢰와 이를 인간 사회 구성의 원리로 삼으려는 아나키즘적 사유는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간 사회를 개선하려는 세계관, 즉 생태아나키즘적 세계관으로 발전한다.

이어 아나키즘적 사유에 바탕해 쓰인 유치환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에 대한, 상반된 두 시각을 살펴보았다. 아나키즘의 시각에서 창작된 생태시, 생명주의 시의 해석에서 생태아나키즘과 심층생태주의 관점을 혼동해 아나키즘 시를 자연에의 동경이나 회귀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나 지배의 대상으로 보았던, 기존의 세계관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인간중심적 실재관에 반대해 생물중심적 실재관으로 전환을 촉구한다. 이에 반해 생태아나키즘은 심층생태주의가 관심을 가지는 오늘날의 생태 위기가 인간 사회의 억압적 체제와 위계질서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보고 현실적 해법을 찾는다. 때문에 현실에서의 억압의 회피를 위해 현실을 포기하고 자연으로 귀향하거나 자연을 동경하는 태도를 생태아나키즘은 배척한다. 유치환이 생태아나키즘적 사유로 쓴 시를 감상할 때도 이러한 현실중심적 사유에 바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논자는 유치환

시의 시적 응시를 현실의 억압보다는 자연에의 회구에 두고 있다.

본고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III장에서 세 편의 유치환의 시를 대상으로 생태아나키즘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이들 시는 다른 논자들이 해석했듯이 자연이나 자연 질서를 찾는 염원이 아니라 현재 시인을 억압하는, 식민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저항 의지로 읽었다. 이 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자들은 화자나 정서가 원시적 공간, 원초성의 세계 등에 천착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앞서 고찰했듯이, 자연의 질서나 원리를 현실의 억압을 해결하는 하나의 준거로 보는 생태아나키즘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반면에 본고는 이 시들을 생태아나키즘적 사유에 바탕해 재해석했고 그 결과 현실의 억압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 극복하려는 화자의 저항 의지를 읽어 낼 수 있었다. 본고의 이런 시도는 유치환의 다른 시에 대해서도 재해석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에 저항하는, 시인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해방 전후에 쓰인, 다른 시인들의 생명주의 시, 생태시도 생태아나키즘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강압적 통치에 맞서는 저항 의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유인전 엮음, 『청마 유치환 전집1-旗幟, 정음사』, 1984.
 _____, 『청마 유치환 전집 I』, 국학자료원, 2008.
 _____, 『청마 유치환 전집 II』, 국학자료원, 2008.
 _____, 『청마 유치환 전집 III』, 국학자료원, 2008.
 _____, 『청마 유치환 전집 V』, 국학자료원, 2008.

2. 단행본

- 구승희 외 공저, 『한국 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335~361쪽.
 권영민, 『유치환과 생명의지』, 『다시 읽은 유치환』, 시문학사, 2008, 14~27쪽.

- 그렉 개러드, 강규한 옮김, 『생태비평』,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39~50쪽.
- 김용직 외 공저, 『유치환과 생명의지』, 『한국현대시사연구』, 일지사, 1983, 379~389쪽.
- 김윤식, 『유치환론』, 『다시 읽는 유치환』, 시문학사, 2008, 91쪽.
- 김종길, 『靑馬의 生涯와 詩』, 『靑馬詩選』, 민음사, 1975, 266쪽.
- 머레이 북친, 박홍규 역,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16쪽.
- _____, 문순홍 역, 『사회생태론의 철학』, 숲, 1997, 126~130쪽.
- 문덕수, 『청마유치환평전』, 시문학사, 2004.
- _____, 『생명의 의지』, 『다시 읽는 유치환』, 시문학사, 2008.
-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2006.
- 방영준, 『저항과 희망, 아나키즘』, 이학사, 2006, 27~28쪽.
- 오장환,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87~264쪽.
- 우드코크, 최갑용 역, 『아나키즘: 운동편』, 형설출판사, 1978, 37쪽.
-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나무이야기, 2009, 220쪽.
- 장 프레포지에, 이소희 옮김, 『아나키즘의 역사』, 이룸, 2003, 360쪽.
- 표트르 크로포트킨, 이윤규 역, 『현대과학과 아나키즘』, 창문각, 1983, 59~67쪽.
- David Pepper. *Eco-Socialism: from deep ecology to social justice*, London: Routledge. 1993. p.204.
- Murray Bookchin. *The Philosophy of Social Ecology*. New York: Black Rose Books, 1995, pp.78~146.
- Robyn Eckersley, *Environmentalism and political Theor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3. 논문

- 김경복, 『생태 아나키즘 문학의 흐름』,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1998, 70~72쪽.
- 김광엽, 『한국 현대시의 공간 구조 연구: 청마와 육사, 김춘수와 김수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51쪽.
- 민명자, 『육사와 청마 시에 나타난 아나키즘 연구』, 『비평문학』 29, 한국비평문학회, 2008, 143~149쪽.
- 박진희, 『유치환 시의 아나키즘적 특성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2~80쪽.

- 방영준, 『아나키즘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송희복, 『한국 시의 아나키즘 영향과 무정부 낙원관』, 『비평문학』 46, 한국비평문학회, 2012, 245쪽.
- 이미경, 『유치환과 아나키즘 - 특히 『소제부』, 『생리』誌 소재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26-4, 한국학보(일지사), 2000, 191쪽.
- 임수만, 『유치환 시의 낭만적 특성 연구 - 낭만적 아이러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91~92쪽.
- 정대호, 『유치환 시 연구: 아나키즘과 세계 인식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정선영, 『왜 심층생태주의인가: 생태비평의 세 가지 근본주의의 생태론 고찰』, 『인문사회 21』 6,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380쪽.
- 조동범, 『아나키즘 시문학에 나타난 자연인식 연구 - 유치환 시의 자연인식과 아나키즘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53, 우리문학회, 2017, 441~451쪽.
- _____, 『유치환의 정치적 실천 의지와 시적 아나키』, 『현대문학이론연구』 6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363~377쪽.
- 최동호,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물의 심상과 의식의 연구 - 김영랑 · 유치환 · 윤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187쪽.
- 황동욱, 『유치환의 시에 나타나는 아나키즘』,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Resistance Consciousness in Yoo Chi-hwan's poems
- Based on the Ecological Anarchism Perspective -

Yang, Jin-young*

Yoo Chi-hwan's poems are interpreted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the will of life, vanity, and anarchism. Among them, in the existing discussion about anarchistic characteristics, they are read as the inherent worth of nature that Deep Ecology claims. Anarchism's concern is that it is a matter of power relations and hierarchies, and it opposes the identification of nature and humanity, which is expressed by Deep Ecology, in terms of mysticism and antihumanism. In other words, in anarchism, nature or view of nature is regarded as a methodology of overcoming reality, not the object of regression or substitution of reality, which Deep Ecology claims. However, some authors have interpreted Yoo Chi-hwan's poetry of anarchism from the perspective of Deep Ec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ritically the existing research history and discover new meanings.

To this end, Chapter II first examined the natural view of anarchism, focusing on early anarchists such as William Godwin and Pyotr Kropotkin. As a result, this paper can confirm that the primary concern of anarchism is not 'nature' but 'de-politics', that is, freedom from oppressive system. Chapter III introduces ecological anarchistic thought that combines early anarchism and ecologicalism, and Murray Bookchin who expanded it into Social Ecology and expla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natural view of Social Ecology and Deep Ecology. On the basis of this, in chapter IV, Yoo Chi-hwan's poems such as 「旗幟」 are appreciated from the Ecological Anarchism point of view of liberation from the oppression

* Ph.D. program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ogang University.

of reality and showed a different view from the previous interpretation that this is the yearning of nature and primitiveness. As a result, it is the result of this article that some poetry of Yoo Chi-hwan, who have been understood as life consciousness and vanity, have been able to read a sense of resistance to the oppression of Japanese imperialism.

Key Words : Yoo Chi-hwan, Deep Ecology, Ecological Anarchism, Anarchism, Social Ecology, Murray Bookchin

<필자소개>

이름 : 양진영

소속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usaessay@hotmail.com

논문투고일 : 2020년 1월 21일

심사완료일 : 2020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 : 2020년 2월 24일

